

쌀 직불제 개편...소득격차 완화되나

정부가 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대농과 소농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는 쌀 직불제의 폐단을 개선하고자 현재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쌀 생산농가 간의 소득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쌀 직불제는 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에도 농가 수익의 안정적인 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쌀 생산을 유발해 수급 불균형을 부추기고, 재배 면적당 지원으로 인해 대

농에 혜택이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쌀소득보전직불제, 발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적용하고 있는 3개 직불제 개편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말 직불제 개편 정부안을 확정한다. 이후 2019년 법령을 개정해 오는 2020년부터 새로운 직불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완료한다.

현재 고정직불화, 생산조정 의무, 생산비연계 등 3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직불화는 쌀·발 직불제를 통합해 지원 단가를 일원화해 특정 품목 생산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이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기 위함이다.

대농 편중 완화를 위해 0.5ha 이하 면

적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 ha당 79만5천원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 생산조정 의무제는 변동직불금 지급 조건으로 일정면적 휴경 또는 타작물 재배를 유도한다.

생산 비연계제는 벼를 재배하지 않거나, 밭작물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쌀 직불제는 그동안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을 받아 대농과 소농의 격차를 벌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올해말 직불제 개편 정부안 확정
2020년 새 직불제 시행...소농 비중 높은 전남 ‘축각’

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남 경지규모 0.5ha 미만 소농은 6만5천농가(44.5%)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10ha 이상 대농은 2천265농가로 1.5%에 그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2017년 쌀 직불금 경지 규모별 수령 실례’에 따르면 경지면적 10ha 이상 ‘대농’과 0.5ha 미만 ‘소농’의 수령액 차이는 고정직불금은 58배, 변동직불금은 54배에 각각 달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 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직불제는 현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물인 만큼, 쌀 생산농가의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임재만기자

한전 등 35개 공공기관 ‘공기업 청렴사회협’ 발족

한국전력은 한전을 포함한 35개 공공기관이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를 발족하고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출범한 청렴사회시민연합회의의 공기업 부문 협의체다.

한전 11개 전력그룹사와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 35개 공공기관이 회원사다.

이날 발족식에서 35개 회원사 대표들은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결의를 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반부패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갑질문화와 공기업 채용비리 등 불공정 해소를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유해봉송행렬 영접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그동안 국외에 안장됐던 민준기·김산해 애국지사의 유해 봉송행렬을 목례로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총리 “추위도 약자를 먼저 공격한다”

한안조정회의서 취약계층 안전대책 마련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겨울철 민생 및 안전대책’과 관련 “추위도 약자를 먼저 공격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안전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경제부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서 겨울철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짧은 기간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개발, 취약계층이 일하면서 이 겨울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많이 알려진 시설에 지원이 몰

리고, 더 외로운 곳은 더 잊는 ‘역현상’이 벌어진다며 기초지자체에서 울겨울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선정해 돕는 방식으로 접근하자고 제언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지자체에는 기부문화 확산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각 부처가 전례 답습주의나 조직편의주의에 빠져서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고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규제개혁이 혁신

성장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총리실이 여러 부처의 규제를 모아서 개선하는 방식이 효율적 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총리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들이 매우 많이 남아있구나’라고 실

감한다며 각 부처 스스로가 세세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장관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자기 부처의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상정된 ‘신산업 현장으로 규제혁신안’과 관련, “82건의 규제를 혁파하고자 한다”며 “특히, 수소차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도 많아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경매투자
투자/비법에 관한 모든 것!
(주)오천경매.010-3605-5000

전국
임야/단독설/무인도
바로합니다.010-6834-7400

2018 전남도 자원봉사자 대회 ‘성황’

자원봉사로 안부, 안전, 안심하는 사회...내 삶이 바뀌는 행복시대

‘2018 전남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15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자원봉사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전남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호남)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한 해 동안 자원봉사 활동으로 헌신한 봉사자를 발굴해 격려하고 나눔 문화와 자원봉사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성장하는 자원봉사, 함께가는 전라남도’를 모토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용재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여성단체협의회, 장애인재활협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인회, 도 자원봉사센터 임원 등 도내 사회단체장이 대거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

신한 공로로 순천제일대학안전봉사대, 목포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김명진 회장 등 37명이 전남지사와 전남자원봉사센터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20년째 지역사회 봉사 및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조선을 비롯해 ▲㈜한화여수사업장 ▲금호폴리켐㈜ ▲보해양조순천지점 ▲포스코엠텍광양사업소 ▲롯데쇼핑(주)울렛남양점 등 6개 기업대표에게는 ‘자원봉사 우수기업 현판’이 전달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자원봉사자들께서 자원봉사·사랑·행복이 넘치는 생명의 땅 으뜸전남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전남도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등 제도·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펜스 “트럼프-김정은 내년 만날 것”

문대통령과 회담 뒤 기자들 만나 “시간·장소 논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내년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관련기사 4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한 직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 만남이 내년 1월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문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과거 정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핵을 포기하라는)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 정상 회담을 열었던 미국과 북한은 최근 2차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핵무기 배치 중단 약속 등을 하지 않으면서 양측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undeclared)’ 미사일 운송 기지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13일 싱가포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 대 ▪ A/S

T.375-588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 공증 · 공사대금 · 각서 · 운송료
차용증 · 거래장부 · 계약서 · 통장 내역
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없음 ◀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부동산, 전세금,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영업직
신입 · 경력직 모집

채권추심직
경력직 모집

*업계 최고대우함

선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 개인 ·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 T/M직원 모집 ● 남 · 여 직원모집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062-228-0990~1/HP 010-5679-0990
백운동·조대방면으로 남광주농협 인근신협3층

태양광발전소 분양

동 · 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노후연금처럼 100KW급 매월 300만원 · 50KW급 매월 150만원 수익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분양지역 : 영광읍, 흥농, 영암신복, 완도신지, 진도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한전과 20년 계약으로 안정적 투자

● 모듈
- LG · 한화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 전국대표 1588-1543
담 이 길 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